성균관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
제1차 교학 정기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6. 3. 13. (금)
회의 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호암관
참여자	제58대 총학생회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총학생회장, 학생지원팀, 교무팀

안건 1. 학점포기제도 재도입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학교: 학생지원팀, 교무팀

총학생회: 학점포기제도 재도입에 관해 논의드리고자 함. 제안 배경은 교과목 폐지 또는 장기 미개설 등으로 인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재수강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 전공 심화 및 타 전공 등 교과 전반에 대한 도전 장려, 본교 졸업생의 학점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함. 학점포기제도 재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드림.

***학점포기제도 재도입 관련 총학생회 제시안**

1) 2018학번 이전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학점포기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학점포기제도를 2019학번 이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입

❍ 2019학번 이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7학기 이상, 최대 2과목까지 과목 제한 없이 학점포기 가능하도록 허용.

❍ 학점포기 후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최초수강으로 처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최초수강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 그러므로 학점포기 후 상황에 대해 여러 안을 검토해야 함.

- 학점포기 후 해당 과목 다시 수강 시 최초수강으로 처리하는 안
- 학점포기 후 해당 과목 다시 수강 시 재수강으로 처리하는 안
- 학점포기 후 해당 과목 재수강 불가하도록 처리하는 안

2) 학점 인플레이션 대비 방안

[1안] 현행 성적평가제도를 유지하나 학점포기제도에 추가적인 제한 장치 마련
(7학기 이상, 최대 2과목, 일정 성적 이하의 과목만 학점포기가 가능하나, 현행 재수강제도는 유지하는 안)

[2안] 2018학번 이전 대상 학점포기제도와 동일하게 재도입 및 재수강

에 추가적인 제한 장치 마련
(7학기 이상, 최대 2과목, 성적 제한 없이 학점포기 가능하나, 재수강 총 횟수를 6~8회로 제한하는 안)

학교: 본교가 학점포기제도를 폐지한 가장 큰 배경은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였음. 재수강제도 사각지대 보완과 전공 심화 및 타 전공 도전 장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학점포기제도 도입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학점포기제도는 전공 심화 및 타 전공 도전을 일부 장려할 수는 있으나, 현재도 상대평가 성적이 전반적으로 후한 편이어서 실제로 성적 때문에 도전을 못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또한 교육과정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성적 상향 경향이 이어진 상황임. 또한 2025학년도 기준으로 절대평가 과목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학점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학사관리와 대외적 부담을 키울 수 있어, 현재로서는 학점포기제도 도입보다 다른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총학생회: 학교 측이 우려하는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와 본교의 성적평가 비율 기준에서 A학점·B학점 최대 비율이 타 대학 대비 높은 편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심화 및 타 전공 도전 장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성적평가 비율이 높다는 점 자체보다, 한 번의 수강 기회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음. 재수강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일부 보완이 될 수는 있으나 재수강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학우들의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며, 일부에서 학점 세탁을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전공 심화 및 타 전공 도전 장려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포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학점포기제도를 모든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 등은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함. 실제로 타 대학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학교: 학점포기제도 재도입 시 학점 인플레이션 가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함. 제한 사항을 둔다면 속도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섣불리 시행할 수 없음.

또한 이미 성적을 잘 받은 학우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총학생회: 개개인의 모든 의견을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지 않는 이상 모두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이어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2018학번 이전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학점포기제도와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음. 학점 인플레이션 대비와 관련하여서도 고민해 보았음

'총학생회 제시안 - 학점 인플레이션 대비 방안 [1안], [2안]'을 고안하였고, 설문조사 시행 결과 학생들은 2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 재수강에 대한 총 횟수 제한은 없지만, 현재는 학기당 2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재수강을 6-8번 이상 하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함. 재수강 총 횟수에 대해 더 제한을 둘 시, 학생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됨.

총학생회: 성적평가 비율에 대한 내부적인 우려도 존재함. 본교 성적평가 비율 기준 최대치가 높은 것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타 대학에 비해 재수강 상한 학점이 낮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타 대학의 학점포기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고려대와 한양대는 이미 학점포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성적평가 비율은 최대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적용 비율은 교강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고 절대평가・상대평가 여부와는 무관함. 따라서 실제

학생들이 받은 성적 분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타 대학과 유사한 수준일 경우 학점포기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학교: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과 별개로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도 포함하고 있음.

총학생회: 총 평점 상향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제안의 주요 배경은 이에 있기보다는 재수강제도 보완, 비교과 활동 장려, 타 대학 대비 경쟁력 확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람.

현재 최초수강 시 성적 취득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은 심화 내용이나 평소 궁금했던 강의보다는 성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강의만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됨.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한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타 대학은 성적평가제도에 대해 성적평가 학점 비율을 늘리거나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추세임. 본교만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졸업생의 학점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학교: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함. 중요한 것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부작용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통해 찾는 것임.

최종 협의안

- ❍ 성적평가제도 외 학사제도 운영 전반까지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 본부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함
- ❍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

논의 안건 2. 교내 장학금 확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학교: 학생지원팀

총학생회: 2026학년도 교내 장학금과 관련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중심으로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이에 따라 교내 장학금 확대를 요청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함.

먼저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 보전이 시급함. 내국인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령이 불가함. 따라서 2025학년도 문행장학금 지급 수준 이상으로 문행장학금을 지급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를 보전해야 함.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장학금액 자연증가분까지 보전이 필요함.

두 번째로 성적우수장학금 확대가 필요함.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성적우수장학금 [장려] 부문을 신설하여 등록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드림.

보편 수혜 가능한 장학금 확대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됨.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수혜 가능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함.

학교: 우선 등록금 인상에 따라 등록금에 대한 비율로 장학금액이 산정되는 장학금들의 자연증가분이 존재함.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학예산이 증액된 상황임. 예를 들어 문행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외국인장학금, 학생성공장학금 등이 있음.

문행장학금의 경우 2025학년도에 등록금 인상 이후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를 보전하기 위해 증액했었음. 올해 또한 2025학년도 지급 수준을 유지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자연증가분까지 보전하겠음.

2026학년도에도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SKKU-BA-DIVE 예산을 2026학년도에 약 2억 원 증액하였으며, 2026-2학기 학생성공-글로벌챌린지 B트랙 예산을 약 1억 원 규모로 신설 및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현재 성적우수장학금은 자연증가분 외 추가 증액은 어려운 상황임. 대신 학과별 선발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일괄적으로 공지하는 등 투명한 운영에 초점을 두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함.

총학생회: 학교 본부의 기조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함. 다만 학우들은 글로벌 경험 확대보다 당장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성적우수장학금 또한 현실적으로 수혜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2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되면서 일반 학생들의 부담은 더 커졌음. 이런 상황에서는 보편 수혜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글로벌 경험 확대를 위한 장학금 증액보다는 성적우수장학금 증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우수장학금 [장려] 부문 신설을 제안드림. 성적우수장학금은 특정 비교과 활동이나 선호 영역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지 않는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현재 [우수] 부문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재학생 2%, 상위 10%까지에게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장려] 부문을 신설한다면 학업에 성실히 임한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학교: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교내·외에서 노력하고 있음. 국가근로장학금을 증액하고, 외부 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장학금액이 2024년 대비 2025년에 매우 증가하였음.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 확대를 위해 2026학년도 SKKU-BA-DIVE 예산을 2억 증액하였고, 학생성공-글로벌챌린지 B트랙 장학금 예산 1억 증액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디딤돌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음.

디딤돌장학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형식의 디딤돌장학금 도입을 고려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음. 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가계곤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소득분위 6-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또는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바탕으로 성장 의지를 충분히 입증한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성적우수장학금의 증액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성적이 가장 우선이라고 인식되게 하기를 원하지 않음. 학교는 학생들이 성적 취득에 쏟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의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음.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함.

총학생회: 단순한 성적 평점에 대한 중요성을 기준으로 두고 성적우수장학금 [장려] 부문 신설을 제안드린 것은 아니었음. 글로벌 경험 및 비교과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학교 본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한계가 존재함. 비교과 및 URP 등에서 받는 장학금은 어디까지나 보조 목적이라는 점에서 성적우수장학금 확대를 고려해 주셨으면 함.

특정한 상황 탓에 가계가 곤란하나 소득분위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디딤돌장학금 형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른 기준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학우들의 사유에 가중치를 두어 선정하는 것이 좋아보임. 해당 장학금을 수혜받고 싶은 학우들은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음. 성적을 주 요소로 본다면 디딤돌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될 것임. 무슨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싶으며, 본인의 학업 계획이 명확한 학우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 학교 또한 디딤돌장학금에 있어서 성적과 소득분위로만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학생들 개개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총학생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교내 장학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바람

최종 협의안

- ❍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 보전을 위해 문행장학금 예산을 확대하여 2025년 문행장학금 지급 수준 유지 및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자연증가분까지 보전
- ❍ 본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 확대를 위해 2026학년도 SKKU-BA-DIVE 예산 2억 증액, 2026-2학기 학생성공-글로벌챌린지 B트랙 예산 1억 증액
- ❍ 소득분위 6-10구간 대상으로 디딤돌장학금을 운영하여 가계가 곤란하나 소득분위로 인해 장학 수혜가 어려운 학생을 지원